

## 學校 文法 教科書의 변천 과정

### 學校 文法の 性格과 統一의 必要性

문법은 연구 태도에 따라 어떤 언어 현상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기술, 설명하는 理論 文法과 현실의 언어 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實用 文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學校 文法은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자신의 말과 글을 올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상의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實用 文法の 성격을 띄게 된다.

이러한 실용 문법으로서의 학교 문법은 근대적인 학교 교육이 개화기 이래 행하여져 온 것과 때를 같이하여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교과서만도 수십종을 헤아릴 정도로 많이 나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많은 문법 교과서가 그 체계와 용어가 서로 달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주는 등의 많은 교육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학교 문법은 통일의 필요성을 안게 되었다. 물론 학교 문법도 文法이라는 학문의 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학설이나 견해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구한 개인의 학설을 학생들에게 전개하는 것 보다는 학설을 집약·통일하여 위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문교부에서는 문법 교과서를 통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점이 있어 지금까지 완성된 통일 문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學校 文法の 변천 과정

지금의 統一案이 나오기 전까지의 학교 문법의 변천 과정은 문교부의 統一作業을 기준으로 할 때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 제 1기 : 1890년대~1949년

이 시기는 근대적인 국어 문법 교육이 시작되어 1949년 文敎部 文法用語 制定委員會에서 292개 항목의 문법 용어를 심의·제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학교 문법의 배태·성장기이다.

### 제 2기 : 1949년~1963년

이 시기는 292개의 文法用語가 1949년 文法用語 制定委에서 만들어져서부터 1963년 문교부가 學校 文法 統一案을 발표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제 1차 文法통일 시기로 볼 수 있다.

### 제 3기 : 1963년 이후

이 시기는 1963년의 學校 文法 統一案의 발표서부터 지금의 통일안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시기로 제 2차 文法통일 시기로 볼 수 있다.

각 시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기

1894년 甲午更張을 계기로 새로운 제도의 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국어를 한 과목으로 교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어 문법 연구도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최초의 문법서인 兪吉濬의 大韓文法(1908)을 비롯하여 周時經의 國語文法(1910) 등 많은 문법서가 쏟아져 나왔다. 이후 崔鉉培의 中等조선말본(1934), 中等敎育朝鮮語法(1936) 등의 본격적인 학교 문법 교과서가 출현하게 되고 학교 문법은 본 궤도에 올랐다.

이 시기의 문법서들은 周時經이 文章論을 中心으로 서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개 品詞論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최근(1979년 이전)까지도 그러했다. 또 用語 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쓰여온 名詞, 動詞 등의 술어를 쓰는 문법서와 우리 고유어식인 ‘임’, ‘엇’, ‘이름씨’, ‘어찌씨’ 등의 술어를 쓰는 문법서로 그 계열이 갈라진다.

이 시기의 文法 敎育은 일제 말기에 이르러 잠시 중단되었으나 해방이 되자 다시 시작되어 1939년 이전의 문법 교과서가 再版이 되어 나온 것 외에 수종의 문법 교과서가 새로이 저술되어 나왔다.

## 제 2기

1948년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교과서의 검인정과 학술 용어를 제정·하계 됨에 따라 학교 문법도 처음으로 통일을 위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1949년 文敎部 文法用語 制定委員會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3원칙을 세워준수한 우리말식 용어와 漢字語로 된 용어를 다 인정하여, 이에 따라 ‘명사 : 이름씨’, ‘음성 : 말소리’ 등과 같은 292개 항의 文法 用語가 결정되었다.

1. 용어는 당분간 한 개념에 대하여 순수한 우리말로 된 것과 한자음으로 된 것의 두 가지를 정한다.
2. 문교부 검인정 도서는 그 중의 한 가지를 일관성 있게 쓸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대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제정 용어 이외에 체제상 더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쓸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 1차 문법 교과서 검정(1949)에 중등 5종을, 제 2차 교과서 검정에 중학교 8종, 고등 학교 6종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9년의 통일안은 엄격히 말해서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통일은 될 수 없고 단지 용어를 규정한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二元的 體系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 문법 교과서는 고유어식 용어와 한자어식 용어로 갈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품사의 종류도, 적게는 5품사에서 많이는 10

품사까지로 다양했고, 같은 품사 수를 설정했을 경우라도 그 분류가 서로 달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더우기 이런 차이가 대학 입시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급기야 문교부에서는 「대학 입시 고시 문제 달성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까지 각 대학교에 보내었으니 그 내용 중에는

- (2) 개인 학설 또는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의 문제를 피할 것이나, 만부득이 출제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체계에 의하여 된 답이라도 동등히 이를 평가할 것(특히 국문법에 주의).
- (3) 용어 또는 술어는 문교부에서 제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되, 기타 특수한 용어는 우리 말과 한자어를 병기할 것.

과 같은 당부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되자 주로 일선 교사에 의해 文法 統一의 필요성이 점차 주장되게 되었고, 관련 학회인 국어국문학회에서는 1962년 공식적으로 문교부에 학교 문법 통일 건의서를 내었다.

### 제 3기

학교 문법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이 점차 각계에서 강력히 주장되자, 1961년 12월 文敎部 敎育課程 審議委員會가 교육과정의 개편을 심의하고 난 뒤에 이를 문제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3년 3월 李江魯, 姜吉云, 金聖培, 李勳鍾, 金漢培, 趙文濟, 金亨奎, 尹泰榮, 李應百, 朴木月, 朴術音, 張奭鎭, 李熙福 등 13명의 위원으로 學校文法 統一 準備委員會를 구성하고 文法 統一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1963년 4월 교과서 저자 金允經·張河一·鄭寅承·崔鉉培 및 李熙昇·李崇寧(대리 李基文, 투표권 없이)·金敏洙(共著者 대표)·崔台鎬 등 8명과 저자 아닌 康允浩·朴昌海·柳濟漢 및 金亨奎·尹泰榮·李應百·李勳鍾·李熙福 등 8명 도합 16명으로 學校文法 審議 專門委員會를 구성하였다. 1963년 4월 15일 제 1회 전문회의를 연 이

때 이 해 5월 10일까지 11회를 개최하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접속사, 조사 등 9개 품사와 252개의 문법 용어를 결정하였으나 품사명이 ‘명사’ 式으로 가결되자 전문 위원 중 4명이 퇴장하고 전문 위원회는 두가지 결정을 남긴 채 영영 중단되고 말았다.

어쨌든 1963년 6월 11일 國語科 敎育課程 審議委員會에서는 專門委員會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1963년 6월 18일 이를 확정, 1963년 7월 25일 문교부에서 발표함으로써 문법 용어로 최종 결정을 보았다.

그러나 이 결정에 말본과는 크게 반발하였고 이 후 문법과의 말본과는 2~3년간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당시 매스컴에서는 이를 文法論 爭이라고 하여 크게 다루었다.

또 이 결과를 가지고 1966년 3차 검정을 하게 될 때 최현배 박사 측의 강력한 항의로 당시 文鴻柱 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고유어 용어의 사용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겨우 9품사 설정 및 252개의 문법 용어에 그친 통일안은 빛을 잃고 말았다.

이 후에 문법 교과서는 이 체제로 이루어지다가, 제 4차 교과서 검정(1979)시에 고등 학교 교과서로 5종만을 인정하였는데 이 때는 1963년도 문법 교과서 통일안에 의하였다. 1979년의 문법 교과서의 검인정 당시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중학교용 문법 교과서를 없앤 것이다. 이에 앞서 1975년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개편할 당시에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 부록으로 ‘중학 문법’을 실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중학교 문법의 통일본이 되었다.

이로써 중학교 문법은 통일되었으나, 고등 학교 문법은 1963년도의 통일안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 통일안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점으로 세부 사항에 차이가 많이 있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점이 계속 문제로 되어 있었다.

## 統一 文法 教科書 편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교부에서는 1982년 3월 통일된 문법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成均館 大學校 附設 大東文化研究院에 이에 대한 기초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大東文化研究院에서는 李基文, 李庸周, 高永根(이상 서울대), 南基心, 李基東(이상 연세대), 金英熙(한글학회), 姜信沈(성균관대) 등 전문 학자 7명으로 統一文法 硏究會(회장 강신항)를 구성하여 기초 연구를 실시, '學校文法 體系 統一을 위한 硏究'라는 보고서를 이 해 12월에 작성, 문교부에 보고하였다.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문교부에서는 1983년 大東文化研究院을 개발기관으로 위촉하여 문법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었다. 대동문화연구원에서는 기초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를 중심으로 6인의 연구진과 8인의 집필진을 구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金敏洙, 南廣祐, 金完纘, 安秉禧, 李應百(이상 기존 문법 교과서 저자), 徐正洙, 李承旭, 李翊燮, 許雄 이상 9명의 협의진에 자문하여 교과서 편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원고본을 작성했다.

### 편찬 방법

(가) 문장 중심의 서술을 지향하되, 단어의 설명을 앞세우고 이를 기초로 문장을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문장의 서술에서는 이야기(하나의 문장이 실현되는 구체적 맥락의 단위)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나) 문법 용어는 1963년의 학교 문법 통일안에 따라 9품사 체계와 용어를 원칙적으로 준수했다. 그러나, 그 용어가 국어의 문법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 바꾼 것도 있다(보기: 평서문, 신어말 어미, 의존 명사).

(다) 1963년의 학교 문법 통일안에 들어 있지 않은 문법 용어는 학계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것 중에서 보편적인 것을 택했다(보기: 보조사).

(라) 예문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쓰이는 말을 주축으로 하였으며, 중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를 비롯하여 기타 문예 작품에서 뽑았다.

(마) 교과서의 내용은 1982년까지 이루어진 업적 가운데서 보편적인 것을 두루 반영하였으며, 의견이 구구한 것은 전통적인 견해에 가까운 것을 수용했다.

문교부는 작성된 원고본에 대하여 19인으로 구성된 1종 도서 편찬 심의회를 거쳐 검토본을 제작하고 1984년 5월 이를 공개하여 내용 검토 및 여론 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본 검토본은 올 연말까지 완성하여, 1985년부터 문교부에서는 이를 전면 보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 새 문법 교과서(통일안)의 성격과 바람

이번에 발표된 통일 문법 교과서는 1963년도 방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1963년도의 경우는 기존 문법 교과서의 체제 및 내용을 절충하여 통일을 시도한 것이지만, 지금의 교과서는 1980년대까지 전개, 발전된 언어 이론,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어의 實生活 측면을 많이 고려하였다. 즉,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통일에 발전적 변화가 더해진 것이다.

이 안이 공포되자 매스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더 이상의 문법 혼란이 없기를 바라며 이를 환영하였다(중앙('84.5.12), 품사 체계, 用語 등 異論 單一化; 조선('84.5.13), 「文法혼란」 39년만의 청산; 한국('84.5.13), 亂脈 國語 文法 교통 정리; 한국('84.5.13), 統一 國文法……專門所見 모아 異見 다시 없게(社說); 서울('84.5.13), 통일되는 敎育用 文法(社說); 경향('84.5.14), 混亂 많은 國語 文法 體系—高校 文法 교과서 統一案에 衆智모으자(社說); 중앙('84.5.14), 배우기 어려운 國語 文法(社說); 동아('84.5.14), 학교 문법 통일안; 조선('84.5.15), 國語 文法(社說)).

해방 후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우리 문법 교육은 실로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이에 누구나 통일된 문법 교과서를 바라는 것은 당연을 떠나 염원

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안에도 문제점은 있다. 언어 생활을 돕는 측면에서 문법 교과서를 엮었을 때 국어의 문법 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점과 더욱 중요한 것은 최신의 언어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 전통적인 문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연말까지 훌륭한 문법 교과서로 매듭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문제가 발견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고쳐서 국어의 규범 문법서로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